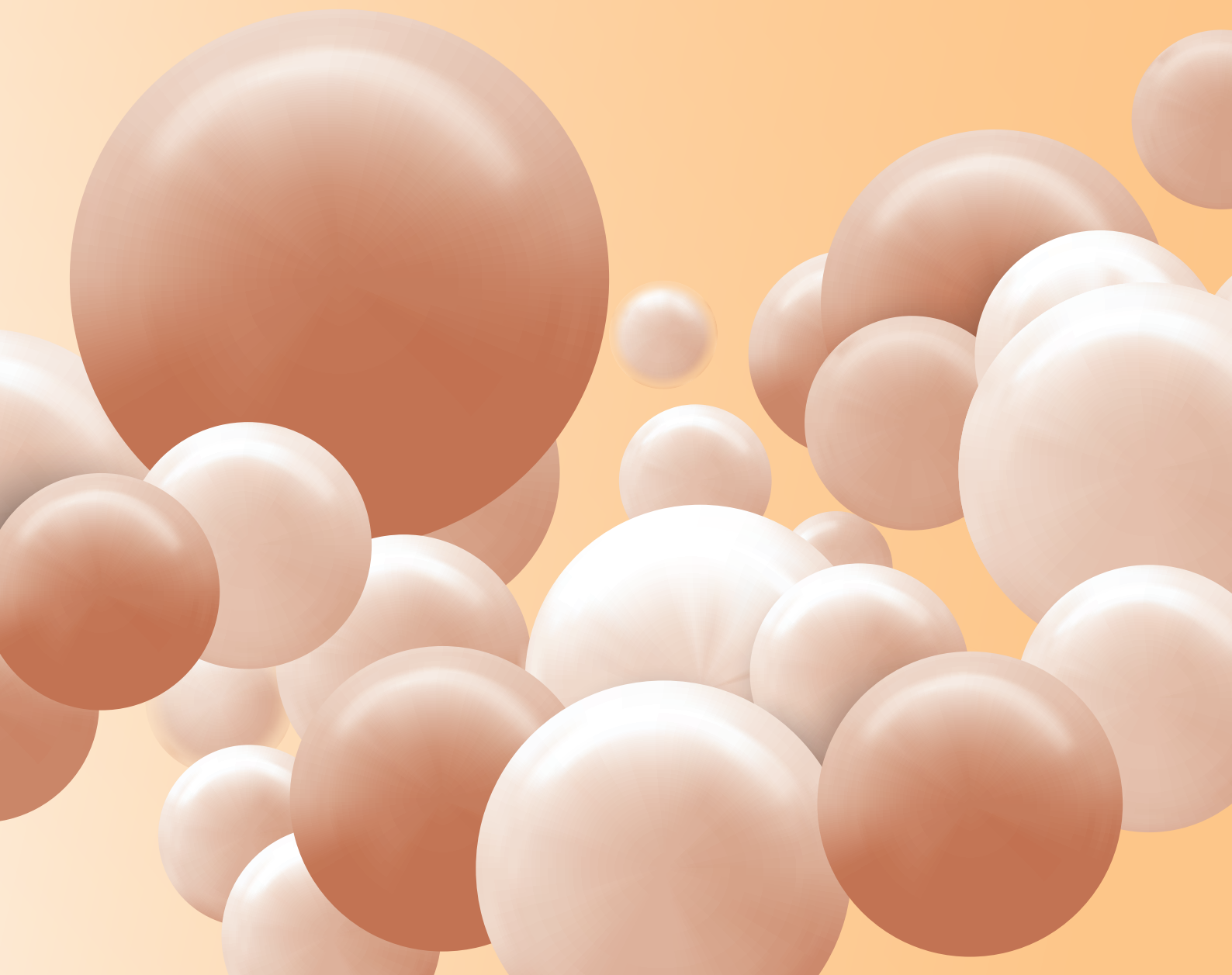


2026학년도 성공적인 수능을 위한
이감의 6모 분석자료집

2025
이감 인사이트
insight



I

주요 데이터 분석

등급컷 / 오답률 TOP 10

[등급컷 분석]

등급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5학년도 대수능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예상 등급컷		
	평가원	평가원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EBS
1	85/83	94/91	97/93	97/92	96/93
2	77/76	87/84	91/87	91/86	90/87
3	70/68	78/75	84/80	82/77	82/79
4	61/59	69/65	74/70	72/68	73/69
5	59/47	57/54	60/57	56/52	58/55
6	38/36	45/42	41/37	37/33	40/38
7	26/26	33/30	25/22	27/23	27/25
8	20/19	24/21	19/16	23/19	20/18

※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순서로 점수를 기재함.

- 01** 일반적으로 6월 모의평가는 실제 시험 난도에 비해 등급컷이 낮게 형성되는 편이다. 고3 수험생들에게 첫 모의평가이므로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이 긴장하기 쉽고 실전 감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모의평가는 예상 등급컷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었다.
- 02** 이번 모의평가와 등급컷이 그나마 비슷했던 모의평가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로, 당시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그보다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경우 '쉬운 독서, 어려운 문학, 까다로운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문학에서 어느 정도의 변별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문학도 쉬웠고 선택과목도 상대적으로 무난했기 때문이다.

*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로, 그 최고점은 쉽게 말해서 언어와 매체 선택자가 100점을 맞았을 때의 표준 점수를 뜻한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이 최고점이 높게 책정된다.

03 그렇다면 올해 수능의 난도는 어떠할까? 올해 수능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평가원에서는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해 당해 연도 수험생들의 역량을 가늠하여 수능을 출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은 이보다 까다롭게 출제해야 변별력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3개년의 모의평가 중에서 6월 모의평가 국어가 어렵게 출제된 경우[→ 2023학년도 6모, 2025학년도 6모]에는 해당 연도의 수능은 적정 난도로 출제되거나 쉽게 출제되었지만, 6월 모의평가 국어가 쉽게 출제된 경우[→ 2024학년도 6모]에는 해당 연도의 수능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나는 생각보다 국어를 잘하는구나. 나는 평가원 성적만 믿어.”라고 생각하여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쉬웠으나 그해 수능은 어려웠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한다.

04 최근 평가원 시험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시험은 선택과목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었다. 언어와 매체는 화법과 작문에 비해 많은 학습량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표준점수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 이것이 부담스러운 학습량에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을 권하는 이유이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의 또 다른 장점으로서는 예측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언어와 매체는 대체로 한두 문항 정도가 까다롭게 출제되지만, 설령 그중 한 문항을 틀리더라도 목표 등급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반면 화법과 작문의 경우 보통은 한두 문항이 까다롭게 출제되는데, 이번 모의평가처럼 전부 쉽게 출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목표 등급 확보에도 변수가 많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령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N수생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언어와 매체 공부를 시작하길 권한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오답률 TOP 10_화법과 작문]

(홀수형 기준 / %는 반올림한 값임)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16	독서	2	64%	①	36%	19%	13%	18%	14%
2위	8	독서	3	61%	⑤	4%	16%	16%	25%	39%
3위	17	독서	3	48%	②	12%	52%	9%	19%	7%
4위	7	독서	2	47%	④	21%	13%	8%	53%	6%
5위	12	독서	3	43%	④	6%	11%	11%	57%	15%
6위	21	문학	3	40%	②	6%	60%	8%	19%	7%
7위	24	문학	2	36%	④	3%	17%	14%	64%	2%
8위	32	문학	2	36%	⑤	7%	5%	18%	5%	64%
9위	30	문학	3	34%	②	5%	66%	12%	9%	9%
10위	25	문학	2	32%	②	5%	68%	7%	6%	14%

독서 5 문학 5

- 01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5문항, 문학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오답률 TOP 10이 독서 6문항, 문학 2문항, 화작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화법과 작문은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작년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오답률 TOP 10에서 3문항이나 늘어난 문학을 어려웠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 TOP 10에 포함된 문학 문항들의 오답률 평균이 60%였다면, 이번에는 36%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문학 영역이 평소보다 까다롭게 출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로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 TOP 10에 포함된 독서 문항들의 오답률 평균은 68%가량이었고, 이번에는 53%가량이었다. 독서 또한 보다 쉽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02 독서 영역에서는 주제통합형 사회·문화 지문에서 2문항[→ 7, 8번], 과학·기술 지문에서 1문항[→ 12번], 인문·예술 지문에서 2문항[→ 16, 17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그중 8, 12, 17번이 전통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보기> 유형의 문항이었다면, 7번은 전형적인 이유 추론 문항이었고, 오답률 1위인 16번은 핵심 관점에 대한 이해를 비교적 새로운 형식으로 묻는 문항이었다. 다만 16번 문항은 기본적으로 최근 평가원에서 강조해 온 특정 명제와 지문의 관점 간의 관계를 묻는 유형을 토대로 한 것으로, 해당 유형은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던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독서 영역에서 가장 특기할 점이라면 주제통합형 지문이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영역에서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주제통합형 지문이 사회·문화 영역에서 출제된 이후로 계속해서 인문·예술 영역에서만 주제통합형 지문이 출제되어 왔는데, 약 4년 만에 다시 사회·문화 영역에서 주제통합형 지문이 출제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영역의 주제통합형 지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감 모의고사 또한 그러한 경향에 맞춰 적극적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 03 문학 영역에서는 현대소설에서 1문항[→ 21번], 갈래 복합에서 2문항[→ 24, 25번], 고전소설에서 1문항[→ 30번], 현대시에서 1문항[→ 32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특별히 어렵게 출제된 작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서 설명한 대로 오답률 TOP 10이라 해도 이에 포함된 문학 문항들의 오답률은 평균 36%가량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길이가 긴 작품들을 출제함에 따라 독해 부담이 있었을 것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항 구성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문항들이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감상자로서의 태도를 묻는 대신에, 단순한 내용 일치 여부를 묻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선지들이 노골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서 영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되었지만 문학 영역에서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많은 수험생들은 독해 부담에도 불구하고 문학 영역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 04 각 영역에서의 지문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에서 설명하겠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오답률 TOP 10_언어와 매체]

(홀수형 기준 / %는 반올림한 값임)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37	언매	3	64%	⑤	6%	27%	23%	9%	36%
2위	8	독서	3	47%	⑤	3%	13%	12%	18%	53%
3위	16	독서	2	46%	①	54%	15%	7%	12%	11%
4위	7	독서	2	37%	④	19%	9%	5%	63%	4%
5위	17	독서	3	35%	②	12%	65%	6%	12%	4%
6위	36	언매	2	34%	②	2%	66%	11%	18%	3%
7위	43	언매	3	32%	①	68%	3%	3%	12%	13%
8위	12	독서	3	30%	④	5%	7%	7%	70%	11%
9위	21	문학	3	29%	②	4%	71%	6%	14%	5%
10위	32	문학	2	26%	⑤	5%	3%	15%	3%	74%

독서	5	문학	2	언매	3
----	---	----	---	----	---

01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5문항, 문학 2문항, 언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오답률 TOP 10이 독서 6문항, 문학 2문항, 언매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시험의 오답률 분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 TOP 10에 포함된 독서 문항들의 오답률 평균이 57%가량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39%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면, 수험생들에게 이번 시험이 얼마나 쉬웠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 참고로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 TOP 10의 문학과 언어와 매체 오답률 평균은 각각 52%, 63%가량이었지만 이번에는 28%, 43%가량에 불과하다.

02 독서 영역에서는 주제통합형 사회·문화 지문에서 2문항[→ 7, 8번], 과학·기술 지문에서 1문항[→ 12번], 인문·예술 지문에서 2문항[→ 16, 17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그중 8, 12, 17번이 전통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보기> 유형의 문항이었다면, 7번은 전형적인 이유 추론 문항이었고, 16번은 핵심 관점에 대한 이해를 비교적 새로운 형식으로 묻는 문항이었다. 다만 16번 문항은 기본적으로 최근 평가원에서 강조해 온 특정 명제와 지문의 관점 간의 관계를 묻는 유형을 토대로 한 것으로, 해당 유형은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던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독서 영역에서 가장 특기할 점이라면 주제통합형 지문이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영역에서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주제통합형 지문이 사회·문화 영역에서 출제된 이후로 계속해서 인문·예술 영역에서만 주제통합형 지문이 출제되어 왔는데, 약 4년 만에 다시 사회·문화 영역에서 주제통합형 지문이 출제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영역의 주제통합형 지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감 모의고사 또한 그러한 경향에 맞춰 적극적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 03 문학 영역에서는 현대소설에서 1문항[→ 21번], 현대시에서 1문항[→ 32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특별히 어렵게 출제된 작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서 설명한 대로 오답률 TOP 10이라 해도 이에 포함된 문학 문항들의 오답률은 평균 28%가량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길이가 긴 작품들을 출제함에 따라 독해 부담이 있었을 것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항 구성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문항들이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감상자로서의 태도를 묻는 대신에, 단순한 내용 일치 여부를 묻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선지들이 노골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서 영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되었지만 문학 영역에서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많은 수험생들은 독해 부담에도 불구하고 문학 영역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 04 선택과목에서 특기할 점은 오답률 TOP 10에 매체 문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 처음으로 오답률 TOP 10에 매체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번에는 매체 43번 문항이 32%의 오답률로 TOP 10에 포함되었다. 매체 문항은 선지에서 묻는 내용의 근거를 지문에서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제시된 매체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이 필수적이다. 11문항의 언어와 매체 한 세트를 반복적으로 풀어 보면서 지문에서 선지 판단의 참조 지점을 찾는 요령을 능동적으로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편 언어 문항인 37번이 오답률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익숙한 언어 개념을 낯설고 까다로운 방식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언어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표면상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 가령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차이에 대해서만 묻는 것처럼 보여도, 용언의 뜻까지도 파악해야 하는 것]에 유의하자.
- 05 각 영역에서의 지문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에서 설명하겠다.

II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

공통과목 : 독서

01. 출제 경향

▶ 총평

전체적인 난도는 매우 평이했다. 최근 시험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다소 길어졌음에도, 대부분의 문항에서 정답 선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수험생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다만 난도와는 별개로 7, 15번 문항과 같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배울 점이 분명한 문항도 있었으므로, 이번 6월 모의평가 성적과는 무관하게 얼마나 현명하게 복습 및 분석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독서론을 제외한 모든 지문이 EBS 수능특강과 연계 출제되었으며, 작년 수능에 비해서 체감 연계율 또한 높아졌다. EBS 연계 학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 지문 평가

- 지문 구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독서론 지문 1개, 주제통합형 지문 1개, 단일 지문 2개가 출제되었다. 작년 수능에서 오랜만에 주제통합형 지문이 앞쪽[→ 4~9번]에 배치되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가장 특기할 점이라면 주제통합형 지문이 인문·예술이 아닌 사회·문화 영역에서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어떤 영역이 주제통합형으로 출제하기에 더 적합한지는 글의 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올해 수능에서도 주제통합형 지문이 사회·문화 영역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제통합형 사회·문화 지문을 충분히 연습해 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에도 주제통합형 사회·문화 지문들이 더욱 다양하게 수록될 예정이다.
- 독서론[→ 1~3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출제 내용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 통상 독서론에서는 독서 이론이나 독서법에 한정된 내용을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독자가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이라는, 비교적 언어 영역에 가까운 내용을 다뤘다. 독자의 태도나 역할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이제까지 출제된 독서론 지문과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동형이의어, 고빈도 단어’와 같은 언어 개념들을 주로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 수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할 수 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독서론 지문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출제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서론 지문에 어떤 내용이 제시되어도 당황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다.

- 주제통합형 사회·문화 지문(→ 4~9번)은 수능특강 131쪽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수능특강 지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부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이번 모의평가 지문은 (나)에서 관련 내용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연계 체감도는 꽤나 높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감 간쓸개에서도 (나)의 문단2에서 특히 강조된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수차례 다루었다.
- 과학·기술 지문(→ 10~13번)은 수능특강 249쪽의 ‘연료 전지’를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다만 수능특강 지문의 핵심 개념소인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설명은 이번 모의평가 지문에서는 마지막 문단에서만 간략하게 언급되었고, 오히려 ‘수소의 운송 및 저장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연계 체감도는 상당히 낮았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인문·예술 지문(→ 14~17번)은 수능특강 73쪽의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을 연계하여 출제되었다. 수능특강 지문의 핵심 개념소인 ‘인포그, 인포스피어’가 그대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연계 체감도는 세 지문 중 가장 높았을 것이다.

▶ 문항 평가

-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오답률 TOP 10에 독서 문항이 5개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주로 독서에서 변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속적으로 소위 ‘킬러 문항’이 독서에서 출제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지 판단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장치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능에서도 이렇게 출제된다면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용 파악이 더 까다로운 <보기> 유형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주제통합형 사회·문화 지문은 7, 8번 문항이 복병이었다. 8번 문항이 <보기> 유형이라서 오답률이 높았다면, 7번 문항은 이유 추론 유형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추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오답률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7번처럼 지문의 밑줄 친 부분의 이유를 추론해야 하는 문항의 경우, 평가원은 정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밑줄 친 부분 주변에 간접적으로 밝히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야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를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직 지문의 초점에 입각해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정답에 대응하는 내용이 지문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밑줄 친 부분 주변에 위치하지도 않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도 않았다. 해당 문항 유형은 언제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정답 선지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7번 문항을 틀렸다면 잘 복습해 두도록 하자.
- 과학·기술 지문은 기계적인 정보 처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난도가 가장 낮은 편이었다. 12번 문항은 오답률이 높은 편이지만, 이는 오히려 <보기>의 설명이 불완전한 데에서 기인한다. 암모니아 분해 반응은 문단3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수의 비가 2:1:3으로 정해져 있다. 즉, 열분해 방식이 아닌 전기분해 방식을 택하더라도 이러한 몰수의 비는 그대로이다. 그런데 <보기>에서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가 생성되었다’는 구절을 덧붙였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는 수험생들은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가 2일 때 수소가 기체의 몰수는 3이 아니라, 2보다 큰 또 다른 값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라는 불필요한 추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정답인 ④번 선지를 선택하는 것이 꺼려졌다면, 12번 문항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좋다. 수능에서는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서술은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번 인문·예술 지문에서처럼 글의 논의가 추상적인 경우에는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세부 내용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것이므로, 더욱 의식적으로 지문으로 돌아가 선지의 정오 판단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16번 문항과 같은 유형을 판단하는 올바른 절차에 대해서는 ‘고난도 문항 해설’에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례적으로 15번과 같이 특정 문장의 의미를 묻는 문항[→ 지금까지는 주로 특정 문장의 이유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어 왔다.]이 출제되었다. 이는 보다 확장된 차원의 추론 문항이므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02. 지문 분석

[4~9] (사회·문화 주제통합) 법 모델과 임대차 분쟁

주목해야 할 지문(2026학년도 6모 대비): 중요도 A

- (가)와 (나)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좋은 주제통합형 지문이다. (가)에서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 모델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후의 법 모델이 이전의 법 모델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가령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도입된 것이다. 다만 해당 모델은 과도한 법적 규제로 인해 사회의 통합이 와해되는 등의 한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도입되었다. (나)에서는 앞서 (가)에서 파악한 세 가지 유형의 법 모델이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문단1의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응된다. 이어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문단2, 3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갱신 요구권’에 대응된다. 마지막으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문단4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절차’에 대응된다. 이렇게 (가), (나)가 어떻게 엮이는지를 잘 파악했다면 각 문항들의 정답 선지도 필연적으로 도출되었을 것이다.
- 연계 양상: 수능특강 131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임차인 보호, 갱신 요구권’이 해당 지문에서도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출제 가능성도 높은 편이었고 관련 논의를 이감 간쓸개에서 수차례 다루었으므로 이를 제대로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참고로 내용상 연계는 아니지만 이감 모의고사에서도 (가)에서 법 이론의 개념들을 열거한 후, 그에 대응되는 구체적 개념들을 순차적으로 (나)에서 파악하는 구조의 주제통합형 사회·문화 지문을 시준3에서 출제한 바가 있다.



고난도 문항 해설 8번

❑ <보기> 설명

- 1) 갑은 자신이 소유한 A 주택과 B 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맥락 짚기] 지문의 개념들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가장 전형적인 <보기> 유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참조해야 하니 (나)의 세부 정보들을 주로 활용하도록 하자.

➡ 임차인 보호와 관련하여,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은 '최단 존속 기간'만큼은 보장된다[(나)의 문단2]. 예컨대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라면 설령 갑[→ 임대인]과 을[→ 임차인] 간의 계약상 임대차 기간이 1년이라도 을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는다.

[주목] 갑과 을 간의 계약 내용이 무조건 보장받는다면 이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가)의 문단1],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이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상가의 경우 주택과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여기서는 보증금이 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여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즉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서]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나)의 문단3]. 즉, 을은 B 상가가 아닌 A 주택에 대해서만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2) 갑이 위의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 이번에는 계약 갱신과 관련된 설명이다. 임차인인 을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임차물인 주택에의 실거주 등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나)의 문단2]. 여기서 갑은 갱신을 거절하는 입장이므로 그가 내세우는 사유가 정당 한지를 따져 봐야 한다.

3)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해당 분쟁에서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를 제안했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분쟁 해결 절차는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예외적으로 양측이 조정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나)의 문단4]. 여기서는 갑의 거절로 인해 애초에 조정 절차가 시작 되지 못했으므로, 둘의 분쟁은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될 것이다.

정답 설명: ㉔

- 1) 갑과 을 간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조정 절차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나)의 문단4].
- 2) 그런데 갑과 을 간에 분쟁 조정 절차를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분쟁 조정 절차는 시작될 수 없다[<보기>-3)].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경로 이탈] 주제통합형 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의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정보를 놓치기 쉽다. 특히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주제통합형 지문의 길이가 평소보다 길었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놓치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평가원은 첫 번째 문단이나 마지막 문단의 세부 정보를 토대로 함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법학 지문에서는 ‘원칙-예외’의 관계가 항상 중요하다. 따라서 마지막 문단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의식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임대차 분쟁 해결 절차>

- 원칙 : 재판 절차를 따름
- 예외 :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 절차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조정 절차를 따름

■ 오답 설명

- ① A 주택과 관련하여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나)의 문단2, <보기>-2)]. 그중에서는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되었을 것이다.
- ②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갑과 을이 자유롭게 맺은 계약을 통해 정한 임대차 기간이 존재함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이 개입하는 것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보기>-1)]. 그리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서는 주거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의무 규정들을 도입한다[(가)의 문단1].
-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의 경우 보증금이 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나)의 문단3, <보기>-1)].
- ④ B 상가의 경우 별도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도 않았고, 보증금이 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최단 존속 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나)의 문단3]. 이는 지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로[→ 자유주의적 법 모델], 임대차를 종료시킬 임대인[→ 갑]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다.

[경로 이탈]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이라는 진술 때문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판단이 모호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문항은 발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B 상가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여 갑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아닌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적용되는 상황임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적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산 관계에서는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나)의 문단1].

[10~13] (과학·기술) 수소의 저장 및 운송 방법

주목해야 할 지문(2026학년도 6모 대비): 중요도 A

- 전형적인 과학·기술 지문으로, 문단1 마지막 문장에 주목했어야 한다. 문단1에 따르면 수소의 저장 및 운송을 위해서는 ‘액상 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를 활용해야 한다. 그에 따라 문단2에서는 액상 유기 화합물을 활용한 방법이, 문단3에서는 액화 암모니아를 활용한 방법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문항의 난도는 전반적으로 세 지문 중에서 가장 평이했다.
- 연계 양상: 수능특강 249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수소 연료 전지’가 해당 지문에서는 부수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관련 논의가 마지막 문단에 명시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정보로 주어졌다.]. 해당 분야에서 수소 연료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에서 충분히 다룬 만큼, 연계 학습을 충실히 한 수험생들에게는 그다지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14~17] (인문·예술)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주목해야 할 지문(2026학년도 6모 대비): 중요도 C

- ‘인간중심주의’와 대비되는 ‘플로리디’의 견해를 제시하는 글이다. 대등하게 열거되는 여러 관점의 주장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독해 부담은 낮지만, 플로리디의 견해를 파악하기가 다소 까다롭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한 지문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논의가 펼쳐지는 지문일수록 세부 정보들을 글의 초점[→ 모든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므로, 인간도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는 플로리디의 주장]에 부합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세부 정보들의 지문 내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에서 묻는 바가 무엇인지를 따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연계 양상: 수능특강 73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인포그, 인포스피어’가 전부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는 등 높은 연계율을 보였다.



고난도 문항 해설 16번

- ㄱ.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 ㄴ.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 ㄷ. 정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은 정보와 별개로 존재한다.
- ㄹ. 주체가 속한 공간은 그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ㅁ.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맥락 짚기] 각 명제가 지문에 제시된 입장들[→ 플로리디, 인간중심주의, 뉴턴, 생명 중심 윤리학]과 상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문항은 개별 선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주어진 각 명제들의 관점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명제들을 살피지 않은 채 선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오히려 함정에 빠지기 쉽다.

■ 정답 설명: ①

- 1) $\neg$ 은 본성과 무관하게 인간과 인공물들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 2) '플로리디'는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인간과 인공물들이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문단2].
- 3) 즉, $\neg$ 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 ② $\neg$ 은 모든 정보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플로리디의 견해와 정면충돌하는 진술이다. 글의 초점[→ 모든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므로, 인간도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는 플로리디의 주장]에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이다.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속성과 행위들은 정보로 환원되므로, $\neg$ 처럼 인간의 행위에 어떤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neg$ 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 ③ $\neg$ 은 $\neg$ 과 비슷하게 인간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진술이다. 이는 인간이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에 부합하는 진술로 볼 수 있다[문단1]. 따라서 $\neg$ 은 인간중심주의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 ④ $\neg$ 은 '인식적 매개 경로'를 따진다는 점에서 플로리디가 고안한 공간 개념인 '인포스피어'에 대응하는 진술이다.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문단3]. 즉, 인포스피어의 추상화 층위는 $\neg$ 의 인식적 매개 경로와 대응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와 달리 '뉴턴'은 공간이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neg$ 은 뉴턴의 입장과 상충하지만,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하지 않는다.
- ⑤ $\neg$ 은 인공물의 도덕적 권리를 부정하는 진술이다. 지문에 제시된 입장들 중에서 인공물을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플로리디뿐이었다. 반대로 '생명 중심 윤리학'은 인공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문단2]. 따라서 $\neg$ 은 생명 중심 윤리학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지만,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한다.

01. 출제 경향

▶ 출제 작품

세부 영역	문항 수	작품	EBS 연계
현대소설	4	이범선, 「표구된 휴지」	비연계
고전시가 + 수필 (갈래 복합)	5	홍정유, 「동유가」	수능특강 64쪽
		이태준, 「해춘 일지」	비연계
고전산문	4	작자 미상, 「김진옥전」	수능특강 117쪽
현대시	4	황동규, 「살구꽃과 한때」	비연계
		신석정, 「역사」	수능특강 92쪽

▶ 총평

지문의 길이를 늘리고 다수의 문항에 다양한 표지를 붙여 복잡도를 높였으나, 문학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난도가 높은 문항은 없어 쉬운 편이었다. 문학적 감상력보다는 독해력에 중점을 두고 출제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 연계 평가

- 전체 6작품 중 EBS 수능특강과 연계된 작품이 3개로 50%의 연계율을 보였다. 고전시가와 고전소설은 발췌 부분이 수능특강과 상당 부분 겹쳤고, 고전시가의 경우 <보기>의 내용도 수능특강과 유사했다. 고전 문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요즘 수험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제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EBS 연계 교재 학습 시 특히 고전 문학의 EBS 연계율은 절대적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고전시가+수필 갈래 복합의 경우, 고전시가 두 작품을 출제하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고 고전시가 한 작품만을 제시했다. 이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문학정보다는 독해력을 요구하는 고전시가 한 작품을 출제한 것과 동일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 갈래 복합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극 대신 수필이 출제되고 있다. 문학 교과서에서는 이미 극 갈래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평가원의 출제 경향은 이러한 현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02. 작품 분석

[18~21] (현대소설) 이범선, 「표구된 휴지」

- 수능에서 「오발탄」만 시나리오로 출제되어 오던 이범선의 낯선 작품이 제시되었다. 전문의 분량이 아주 짧은 편인데, 21번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선택된 작품이라 짐작된다. 최근 현대소설에서는 21번 문항처럼 서술 방식과 결부된 특징을 묻는 문항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박태원의 「골목 안」도 서술상 특징 문제가 <보기> 문항으로 제시되었다.], 이런 출제 경향이 작품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21번 문항은 구성상의 특징과 서술상의 특징을 결합한 유형으로, 문학 영역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19번 문항 역시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묻고 있다. 수험생들은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 것보다 서술 방식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하는 이러한 출제 경향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감 모의고사에서도 서술상의 특징 문제를 매회 빠짐없이 출제하고 있다.
- 지문이 매우 길어 두 단을 꽉 채웠지만, 21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밀도와 난도가 낮다. 그중 20번 문항의 오답률이 비교적 높은데, 이는 문제로 삼은 ‘편지’의 내용이 띄어쓰기 없이 사투리로 되어 있는 데다가, 1960~70년대의 생활상을 배경으로 한 것이어서 수험생들이 이해하기에 까다로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난도 문항 해설 21번

■ <보기> 설명

지문에서 서술 시점과 시·공간적 배경이 다른 이야기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그와 결부하여 어떤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 정답 설명: ②

지문에서는 ‘구석으로 갔다’라는 서술로 내화[→ ㉞]를 마무리하고 ‘이게’라는 지시 표현으로 시작하는 발화가 제시되며 외화[→ ㉠]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때 ‘이게’로 이어지는 외화의 내용은 시간적으로 내화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즉, 청년의 이야기인 내화에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화가의 이야기인 외화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의 흐름상 순차적인 것이지 역전된 것이 아니다.

■ 오답 설명

① ‘지게꾼이 있단다’와 ‘안내원이 막았다’는 한 문단 안에 있는 서술이다. 이 중 ‘지게꾼이 있단다’는 외화에서 내화를 듣는 화가의 시점에서 서술한 것이고, ‘안내원이 막았다’는 내화의 사건을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서술 부분은 외화에서 내화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서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외화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돼서’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한 친구의 말 뒤에 그 편지 내용의 일부가 또 다른 내화[→ ㉡]로 삽입되어 있다. 편지 내용에서 이어지는 서술을 통해 ‘편지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 때문에 화가인 ‘나’가 ‘비시시 웃’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외화에서 화가가 친구의 '비행기가 떠날 때' 문득 편지 내용을 떠올리는 상황에 이어서, 바로 '니떠나고'로 시작되는 편지 내용의 일부가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 뒤에 화가가 '그길로' 편지 표구를 맡긴 '표구사'로 가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외화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 친구가 떠남]과 유사한 의미의 표현[→ '니떠나고']이 편지 내용에 있던 것을 떠올린 화가가 편지 액자를 찾기 위해 표구사로 간 것을 의미한다. **[경로 이탈]** 이 선지를 틀렸다고 판단해 정답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은데, 이는 선지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선지에 'a[→ 외화]에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떠올린 '화가' 대신에 'c[→ 또 다른 내화인 '편지' 내용]에서 a의 상황과 유사한 표현을 떠올린 '화가'라고 진술되었다면 오답률이 낮아졌을 것이다.
- ⑤ 외화에서 화가가 편지를 표구하고 싶다고 한 '친구의 심정'을 생각하는 서술 다음에 앞서 제시되었던 편지 내용의 일부가 다시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외화에서 화가가 액자에 든 편지 내용들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음을 뜻한다.

[22~26] (고전시가+수필) (가) 홍정유, 「동유가」 / (나) 이태준, 「해촌 일지」

주목해야 할 작품(2026학년도 6모 대비): 홍정유, 「동유가」 중요도 B

- '기행'이라는 소재로 (가)와 (나)를 묶은 갈래 복합 세트이다.
- 기행 가사인 (가)는 가사 중에서도 사실적 기록에 치중한 작품이라 문학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표현을 묻는 문항은 없고 모두 내용 이해 문항으로만 구성되었다. 5문항 중 가장 오답률이 높은 24번도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이다. 최근 평가원 시험의 고전시가 문항은 작품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고전 문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요즘 수험생들에 맞춘 출제 경향이라 짐작할 수 있다.
- 소설가 이태준의 수필 작품인 (나)도 내용 이해를 위주로 출제되었다.

[27~30] (고전산문) 작자 미상, 「김진옥전」

주목해야 할 작품(2026학년도 6모 대비): 작자 미상, 「김진옥전」 중요도 A

-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었다. 이번 시험에서는 수중 세계에서 전쟁담이라는 특이한 부분을 지문으로 제시하였다. 해당 지문은 이감 모의고사와도 상당 부분 겹치는데, 특히 모의평가에서 '중략'으로 처리한 부분이 이감 모의고사에서는 지문으로 출제되어, 이를 풀어 본 수험생들은 이 지문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수능특강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판본이 다른 지문을 제시했다. 출제된 판본의 경우 서사가 훨씬 압축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짧은 분량에 더 많은 서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서사 요소가 많은 지문일수록 출제에 유리하기 때문에 평가원은 종종 EBS 연계 교재와 다른 판본으로 출제하곤 한다. 달리 말하면 이는 서사 요소가 복잡한 고전소설 지문을 읽어 내는 능력이 수험생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감 모의고사는 다양한 판본을 찾아내고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출제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원의 출제 경향에 맞추고 있다.

- 고전소설도 현대소설과 마찬가지로 지문이 길어서 두 단을 가득 채웠고, 4문항이 모두 내용 이해 문제였다. 현대소설과는 달리 서술상의 특징을 다루는 문항은 없었다. 고전 문학은 문학적 감상력보다 독해력 확인에 치중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모의평가의 특징 중 하나는 <보기> 내용의 완성도가 낮다는 점인데, 특히 고전소설의 <보기>는 제시된 주제가 완결성 있게 설명되지 못했다. 최근 평가원이 출제한 <보기>에서 이런 양상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31~34] (현대시) (가) 황동규, 「살구꽃과 한때」 / (나) 신석정, 「역사」

주목해야 할 작품(2026학년도 6모 대비): 신석정, 「역사」 중요도 C

- (가)는 화자가 자동차를 타고 가며 본 풍경이 제시된 작품이다. 수험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상황을 내용으로 삼은 작품이 출제된 것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 EBS 연계 작품인 (나)는 분량에 비해 문제화할 요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출제를 기대할 만한 작품은 아니었다. 결국 내용 독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고, 그 결과 (나)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33번과 34번 문항에 나누어 구성되었다. 즉 33번과 34번 문항은 서로 간섭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감수하고 평가원이 해당 작품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작품성과 무관하게 가능한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모든 작품을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 오답률이 높은 32번 문항의 정답 선지는, 선지 진술 전체의 논리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진술의 일부 지점[→ ‘정서적 거리’]이 틀리도록 선지를 만들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문학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선지를 꼼꼼히 읽는 훈련을 해야 한다.



고난도 문항 해설 32번

정답 설명: ⑤

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던 화자는 [E]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 대상을 보고는 ‘아 하늘의 기둥들!’이라며 감탄하고 있다. 즉, 대상[→ 살구꽃 나무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서도 화자는 대상에 대한 애착을 떨치지 못하여 차를 세우고 다시 대상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시에서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낀다는 의미이므로, 이처럼 대상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화자가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오답 설명

- ① [A]에서 살구꽃이 핀 마을에 차를 댄 화자는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그리고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구름’ 같은 모양으로 핀 ‘분홍빛’ 색채의 ‘살구꽃’을 보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다고 하며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자가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화자는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어서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동네에 내려와 있는 ‘하늘 구름’, 즉 동네에 구름처럼 가득 피어 있는 ‘살구꽃’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마을 안에 차를 대고 마을에 구름처럼 가득 핀 ‘살구꽃’을 구경하던 화자는, [C]에서 차를 운전해 ‘다리를 건너’ 마을을 떠나가면서도 ‘차 거울들’ 속에 비친 ‘꽃구름’, 즉 ‘살구꽃’을 보고 있다.
- ④ [D]에서 화자는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지만 ‘검은 등치들이 / 군소리 없이 [살구꽃]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시야에 온전히 들어 오지 않는 꽃나무 등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총평

이번 6월 모의평가의 화법과 작문은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쉬웠다.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평이했고 정보량도 많지 않은 데다 오답 선지들을 확실히 판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정답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동안 화법과 작문에서는 40번과 45번 두 문항의 오답률이 대체로 30%를 넘으며 일정 수준의 난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45번의 자료 활용 문항이 쉽게 출제되면서 전반적인 난도가 조금 낮아졌다.

이번 모의평가의 화법과 작문에서 특기할 점은 작문+화법 통합 세트에 ‘비평문’이 ‘면접’과 짝을 이뤄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비평문’은 평가원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식이어서 새로울 게 없지만, ‘면접’은 지난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매우 오랜만에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여기에 더해 ‘면접’은 주로 ‘자기소개서’와 짝을 이뤄 출제될 수 있는 형식인데, ‘자기소개서’ 대신 ‘비평문’과 엮어 세트를 구성했기에 더욱 새롭게 느껴졌다. 이는 ‘자기소개서’를 출제했을 때 통합 세트에서 5문항을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비평문’을 출제해 수험생들에게 독해 부담을 안김으로써 난도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지문의 내용이 평이했고, 문항도 어렵지 않아 수험생들의 문제 풀이 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화법과 작문에서의 EBS 교재 연계는 언제나 그렇듯 연계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작문에서 다룬 미식 관광의 ‘관광’이라는 소재가 수능특강에서 다룬 ‘여행 방송’,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소재와 연계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EBS 교재를 활용할 경우에는 지문 내용 자체보다는 지문 유형에 따른 문항 출제 패턴을 눈여겨보길 바란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35~37] (화법 - 발표) 사이테스 등재 생물종과 관련 절차

- 화법에 또다시 ‘발표’가 출제되었다. ‘발표’는 평가원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식으로, 지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6회 연속 출제되고 있다. 화법에 출제되는 형식으로는 ‘발표, 강연, 연설, 라디오 방송’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발표’의 출제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이라면 ‘발표’ 지문과 그에 따른 문항 유형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35번)’ 문항이나 ‘청중의 듣기 활동(37번)’ 문항은 비슷한 선지들이 반복 출제되고 있는 만큼, 해당 선지들의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 이번 모의평가의 ‘발표’ 지문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사이테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지문의 내용은 평이했다. 문항 구성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35번), 발표자의 자료 활용 방안(36번), 청중의 듣기 활동(37번)’으로, ‘발표’ 지문에서 전형적으로 다루는 문항들이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자료 활용 방안을 묻는 36번 문항의 경우, 기존의 ‘발표’ 형식에서 활용되던 자료 활용 방안 문항에 비해 주어진 자료가 복잡해서, 해당 자료를 지문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항 해설 36번

정답 설명: ④

[자료 3]은 ‘사이테스 부속서별 등재 종 수(비율)’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발표자는 ㉔의 자료를 제시하고, ‘여기를 보면, 사이테스 부속서 1, 2, 3에 등재되어 있는 종의 수와 각각이 사이테스 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㉔의 자료를 제시하기 직전에 ‘사이테스는 생물종을 멸종 위기 위험 정도에 따라 부속서 1, 2, 3에 구분하여 등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료 3]을 멸종 위기 위험도에 따라 구분한 사이테스 종의 수를 보여 주는 자료로 ㉔에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설명

- ① [자료 1]은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의 날 설문 조사 결과’이다. [자료 1]을 통해 학생들이 동물을 키우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와 키우고 싶은 동물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 1]을 통해 학생들이 키우고 싶은 동물 중 어떤 동물이 사이테스 종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발표자는 ㉑의 자료를 제시한 후 ‘여기를 보면, 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네요.’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발표자는 ㉑에 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로 [자료 1]을 제시했을 것이다.
- ② [자료 1]은 학생들이 동물을 키우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와 키우고 싶은 동물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 1]을 통해 사이테스 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보여 줄 수는 없다. 다만, 발표자가 ㉔의 자료를 제시하고 이어지는 설명에서 ‘여기 앞선 설문 결과를 다시 보면,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동물이 다양’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발표자는 [자료 1]을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동물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로 ㉔에 제시했을 것이다.
- ③ [자료 2]는 ‘사이테스 회원국 현황’을 알 수 있는 세계 지도이다. 따라서 [자료 2]를 통해 사이테스 종이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 줄 수는 없다. 발표자는 ㉓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많은 사이테스 회원국의 분포를 보여 주는 자료로 [자료 2]를 제시했을 것이다.
- ⑤ [자료 3]은 ‘사이테스 부속서별 등재 종 수(비율)’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처럼 [자료 3]에는 종 수와 비율만 나와 있으므로, [자료 3]을 제시하여 ‘사이테스 종 중 2.69%에 해당하는 종만이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 줄 수는 없다. 또한 발표자는 2.69%에 해당하는 부속서 1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 거래가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부속서 2와 3에는 상업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한 종들이 등재되어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부속서 2와 3에도 학술 연구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할 종들이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2.69%에 해당하는 종[→ 부속서 1]만이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로 [자료 3]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8~42] (작문 + 화법 통합 - 비평문 + 면접) 인증 솜 현상에 대한 비평문과 시사 비평 동아리 면접

- 작문+화법 통합에는 '비평문 (가)'와 이를 바탕으로 시사 비평 동아리가 실시한 '면접 (나)'로 구성된 세트가 출제되었다. 앞서 총평에서 언급했듯이 '면접'은 매우 오랜만에 출제되었는데, 여기에 짝을 이루는 글이 '자기소개서'가 아닌 '비평문'이라는 점에서 좋은 구성이었다. '자기소개서'는 기술되는 내용을 까다롭게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고 따라서 '면접'의 내용도 평이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세트를 구성하면 난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평문'과 '면접'으로 세트를 구성한 덕분에 적정 난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 (가)는 '비평문'이긴 하지만 글의 소재가 자신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고 누리 소통망에 공유하는 '인증 솜' 현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문 독해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면접'에서의 의사소통 양상을 보여 주었고, 뒷부분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비평문'을 점검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면접'이라는 대화의 특성과 '비평문'이라는 글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 문항 구성은 '글쓰기 방식(38번), 고쳐 쓰기(39번), 면접 내용 생성(40번), 면접에서의 의사소통 방식(41번), 표현 전략에 따른 답변(42번)'으로 이뤄졌다. 38번과 39번, 41번 문항의 경우 작문+화법 통합 세트에서 자주 다루던 문항들로, 이감 모의고사를 통해 해당 유형을 반복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답변 전략>을 고려하여 학생의 답변을 추론하는 42번의 경우 낮은 문항이기는 하나 <답변 전략>에 제시된 내용들을 선지와 기계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면 되는 것이어서 어렵지는 않았다. 다만 (가)와 (나) 두 지문을 통합하여 이해해야 하는 40번 문항의 경우 오답률이 31%로 다소 높았는데, 이는 40번 문항에서 오답률을 일정 정도 확보한다는 평가원의 출제 전략이 이번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화법과 작문에서 (가)와 (나)를 함께 이해해야 하는 40번 문항은, 지문과 선지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수험생들이 자주 실수를 범하는 문항이다. 해당 문항의 오답률이 매년 높았음을 감안하여 문제를 풀 때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항 해설 40번

정답 설명 : ③

(가)의 ㉔과 관련해서 면접자들[→ 학생 1, 학생 2]은 지원자가 다양한 관점을 살폈는지 질문하기 위해 메모 2에 '한쪽의 관점만 살핀 것은 아닌지?'라고 작성하였다. 이 메모의 내용은 (나)에서 '학생 2'의 '비평문을 쓰기 전에 인증 솜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라는 질문으로 구현되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인지 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관점들을 글에서 밝혔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오답 설명

① (가)의 ㉔과 관련해서 면접자들은 화제의 시의성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메모 1에 '인증 솜 현상 →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이라고 작성하였다. 이 메모의 내용은 (나)에서 '학생 1'이 '선택하신 글감이 왜 현 시점에서 논의될 만한 사회적 현안이라고 보셨나요?'라고 하여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구현되었다.

- ② (가)의 ㉔과 관련해서 면접자들은 필자[→ 지원자]와 상반되는 관점의 문제점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메모 2에 ‘필자와 상반된 관점의 문제점은 뭐지?’라고 작성하였다. 이 메모의 내용은 (나)에서 ‘학생 1’이 ‘인증 솜이 보여 주기식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는데, 그 지적이 지닌 문제점은 무엇일까요?’라고 하여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으로 구현되었다.
- ④ (가)의 ㉔과 관련해서 면접자들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정 근거 자료의 효과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메모 3에 ‘이 근거만의 효과는?’이라고 작성하였다. 이 메모의 내용은 (나)에서 ‘학생 1’이 ‘다른 근거 자료와 달리 타인의 소감을 직접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효과를 얻고자 이 근거 자료를 선택해 글에 활용하셨나요?’라고 하여 인터뷰 자료로 의도한 효과를 묻는 질문으로 구현되었다.
- ⑤ (가)의 ㉔과 관련해서 면접자들은 근거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요소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메모 3에 ‘근거의 타당성 → 연관성이 있나?’라고 작성하였다. 이 메모의 내용은 (나)에서 ‘학생 2’가 ‘인증 솜이 독서 문화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로 도서 구매량 증가 자료를 활용하셨는데, 연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시나요?’라고 하여 근거 자료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현되었다.

[43~45] (작문 - 정보 전달 글) 미식 관광의 개념과 효과

작문의 지문은 학생이 학교 신문이나 교지에 게재하기 위한 ‘초고’ 형식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번 모의평가의 작문 지문 역시 교지에 실기 위해 쓴 학생의 초고인데, 지문에서 다루는 미식 관광이라는 내용이 쉬운 편이어서 지문 독해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항 구성 역시 ‘글쓰기 계획의 반영(43번), 초고의 제목 작성(44번), 초고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45번)’으로 작문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온 문항들이라 문제 풀이에 따른 생소함도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통상 작문에서는 자료 활용 방안을 묻는 45번 문항이 화법+작문 통합 지문의 40번 문항과 더불어 오답률이 높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보기>에 상당한 분량의 자료가 제시되었음에도 막상 정답이 너무 쉽게 도출되어서 오답률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작문에서 자료 활용 방안을 묻는 문항은 오답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만큼, 해당 문항을 풀 때에는 지문과 <보기>, 선지에서 연결되는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01. 언어

▶ 총평

최근의 언어 문항 유형과 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출제되었다. 이번 모의평가는 공통과목의 난도가 높지 않아 언어 37번 문항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 최근 평가원 시험의 언어 문항은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묻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이 언어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 나오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묻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36번, 39번 문항처럼 단일한 문법 개념을 물어보되, 문법 현상이 발생하는 여러 조건을 제시하여 조건들 간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게 하는 유형의 문항이다. 36번 문항의 경우에는 어간 말 모음, 반모음 등 변화가 조금씩 다른 다섯 가지의 사례를 제시하고 음운 변동의 양상과 그 표기 반영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고, 39번 문항은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가 여러 음운 조건하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한편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묻는 방식의 또 다른 유형은 37번처럼 여러 문법 요소를 묶어서 물어보는 문항이다. 37번 문항의 경우 피동사,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문장, 본용언과 보조 용언 등 다양한 문법 요소를 활용하여 출제되었다. 이러한 문항 유형은 주로 용례가 되는 문장을 제시하여 문법 요소를 확인하게 하는 형태로 출제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문장을 용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문장을 제시하여 문법 개념의 숙지 여부를 정밀하게 물어본다는 것이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35~36] 음운론

용언이 활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음운 변동과, 그 결과의 표기 반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지문에서는 특히 어간 말 모음을 가진 용언이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36번 문항은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경우의 수를 다섯 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문제 풀이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7] 형태론·통사론

여러 문법 개념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피동사,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문장,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의 세 가지 문법 요소가 제시되었다. 각 문법 요소는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문법 개념에 속하지만, 용례 문장들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서 언어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고난도 문항 해설 37번

정답 설명: ㉔

‘나는 날씨가 따뜻해질 것처럼 보여 외출했다가 감기에 걸려 버렸다.’의 용례에서는 ‘걸려 버렸다’로 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술어]이 실현되었다. 한편, 해당 문장에서 ‘보여[→ 보이다]’는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피동사이므로, ㉕[→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피동사]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설명

- ① ‘우리나라 선수는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실력자이다.’에서 ‘손꼽히는’은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피동사이므로 해당 문장에는 ㉕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㉔[→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문장]은 실현되지 않았다.
- ② ‘내 짝은 어제 졸업식장에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 왔다.’에서 ‘담긴’은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사이므로 해당 문장에는 ㉕이 실현되었다. ‘모아 왔다’의 ‘오다’는 많은 용례에서 ‘진행’ 등의 보조적 의미를 전달하는 보조 용언으로 쓰인다. 그런데 해당 문장에서 ‘모아 왔다’는 문맥상 ‘모아서 왔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이때의 ‘오다’는 보조 용언이 아닌 본용언으로 쓰였다. 따라서 ㉔은 실현되지 않았다.
- ③ ‘친구가 마음이 어려서 나는 친구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에서 ‘마음이 어려서’는 ㉔에 해당한다. ㉕은 실현되지 않았다. 참고로, ‘넘기지[→ 넘기다]’는 ‘지나쳐 보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피동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형이 골동품 가게에서 싸게 산 우표가 올해 들어 값이 올랐다.’에서 ‘값이 올랐다’는 ㉔에 해당한다. ㉔은 실현되지 않았다.

[38] 통사론

동격 관형사절과 관계 관형사절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지만, 37번 문항처럼 이 문항 역시 선지로 제시된 용례가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 자체만 보면 실수할 수 있게 만들어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㉔번 선지의 ‘사건’은 동격 관형사절, 즉 ㉔[→ 수식 받는 명사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는 경우]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해당 문장에서는 ㉕[→ 수식받는 명사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경우]에서 쓰였다.

[39] 국어사

중세 국어 목적격 조사의 결합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지만, 특기할 점은 끝음절 모음이 ‘ㄹ, ㄱ’인 체언 뒤에 붙는 목적격 조사라는 특수한 경우를 활용하여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내용까지는 미리 학습해 놓지 못한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어진 요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

02. 매체

▶ 총평

올해 6월 모의평가의 매체는 대체로 평이했으며,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도를 유지했다. 매체는 오답률이 항상 높은 언어와 함께 묶여 구성되는 탓에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각각의 선택과목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두 선택과목의 난도에 균형을 맞추려면 매체를 결코 어렵게 출제할 수 없고, 따라서 앞으로도 매체는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매체 한 문항의 오답률이 30%가 넘었지만, 나머지 문항들의 오답률이 한 자릿수이거나 10% 중반으로 낮아서 문제 풀이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온라인 공동 문서나 누리 소통망, 앱, 온라인 카페 등의 뉴 미디어들이 출제되었다. 책이나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올드 미디어를 제시하여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수험생들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뉴 미디어를 제시해 매체 자료의 활용 방안이나 뉴 미디어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 출제의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매체 자료 자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에 생소함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다. 문항 구성 역시 매체에서 항상 다루지는 문항 유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매체 자료들에 대한 지식적 측면의 내용 혹은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내용을 묻는 다기보다 수험생들이 일상에서 자주 활용하는 매체의 활용 방법이나 기본적인 독해 여부를 묻는 것이어서 문제 풀이의 부담도 적었을 것이다.

매체는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도 수능특강 지문에 등장하는 ‘동아리 신입 부원 모집 포스터’라는 소재가 연계되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EBS 교재를 내용적 측면의 연계를 고려하여 학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EBS 교재에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매체 자료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EBS 교재를 통해 다양한 매체 자료들의 특성을 파악해 두는 것이 향후의 실전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40~43] (언어 + 매체 통합 - 온라인 공동 문서 + 누리 소통망 대화) 학급 자율 활동 계획서

- 언어+매체 통합에서 ‘온라인 공동 문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평가원에서는 모의평가와 수능을 통해 다양한 매체들을 선보여 왔는데,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온라인 공동 문서’를 새롭게 보여 준 것이다. (가)에는 학급 자율 활동 계획서가 제시되었고, (나)에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정 의견을 나누는 누리 소통망 대화가 제시되었는데, (가)와 (나) 모두 평이한 내용이어서 지문 독해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문항 구성은 ‘매체 자료의 활용(40번), 매체에서의 의사소통 양상(41번), 매체 언어의 표현 방식(42번), 매체 자료의 생산 방식(43번)’으로, 지금까지 언어+매체 통합 지문에서 자주 다루던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 매체에서는 보통 ‘매체 언어의 표현 방식(42번)’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매체 자료의 생산 방식(43번)’ 문항의 오답률이 더 높았다. 지금까지 매체 자료의 수정에 대해 묻는 문항은, 대개 선지의 뒷부분에 제시되는 수정 사항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모의평가의 43번 문항은 수정 사항을 언급하는 부분이 아닌, ‘준모’와 ‘소민’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언급한 부분을 틀리게 제시하였다. 때문에 지금까지 출제되어 온 형식에 익숙했던 수험생들이 선지의 앞부분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다면, 정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난도 문항 해설 43번

정답 설명: ①

(나)에서 '준모'가 '우리 활동은 책 읽고 다양한 의견을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건데, 활동명에 토론을 넣어도 될까?'라고 묻자 '소민'이 이에 동의하며 '활동명은 '독서하고 대화하고'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재구성된 (가)에서 '독서하고 토론하고'라는 활동명이 '독서하고 대화하고'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활동명은 '활동 기간'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라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다.

오답 설명

- ② (나)에서 '소민'은 수업 일정이 변경된 것을 언급하며 '23일은 6, 7교시가 모두 자율 활동 이니까 100분으로 변경해야 할 거 같아'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의견이 반영되어 기존에 '50분'이었던 2025년 4월 23일의 활동 시간이 '100분'으로 수정되었다.
- ③ (나)에서 '재균'과 '민정'은 △△변환기 앱을 사용하며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민정'은 '이런 정보들이 담긴 앱 사용법을 찾아 링크를 걸어 두는 게 좋을 듯해.'라고 하였다. 이 대화 내용이 반영되어 '△△변환기 앱 사용법'이라는 하이퍼링크가 비교란에 추가되었다.
- ④ (나)에서 '소민'이 '모둠 구성 및 책 선정의 순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묻자 '채현'은 '모둠이 정해지고 책을 선정하는 게 활동을 진행하기에 편할 거 같아.'라고 하였다. 이처럼 활동 진행의 편의성을 고려한 '채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둠 구성 후 책 선정'이라는 결정 내용이 비교란에 추가되었다.
- ⑤ (나)에서 '민정'은 '학교 도서관을 확인해 봤는데 같은 책이 많지 않'았다며 책을 단체 대여하는 것보다 '각자 준비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교 도서관 보유 도서를 고려한 '민정'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자 책 준비하기'라는 내용이 비교란에 추가되었다.

[44~45] (매체 - 앱 + 온라인 카페) 동아리 신입 부원 모집 포스터

- 매체에서는 '앱'과 '온라인 카페'가 출제되었는데, 이 매체 자료들은 그동안 평가원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여러 번 출제된 것들이다. (가)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먹거리 이해력 향상 프로그램 공지 사항이 제시되었고, (나)에는 동아리 신입 부원 모집 포스터 제작에 관한 자유 게시판 글이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와 (나)가 한 지문으로 엮일 때는 두 제재 사이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두 제재가 각각 제시되었다. 정보량도 많지 않고 지문 내용도 평이한 수준이어서 지문 독해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 문항 구성은 '매체 자료의 활용(44번), 매체 자료의 생산 방식(45번)'으로 그동안 평가원에서 자주 출제하던 구성이어서 문제 풀이에 따른 어려움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45번 문항의 경우 ②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해당 의견을 말한 학생이 '정민'이 아닌 '현우'이기 때문인데, 선지의 내용을 독해하여 정오 판별을 하려 했던 수험생들은 다소 황당했을 수도 있다. 매체에서는 누리 소통망이나 댓글을 통해 발화자들이 여럿 등장해 의사소통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만큼, 각 발화의 주체까지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꼼꼼함과 긴장감을 유지해야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III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이감의 연계 양상

독서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독서문 [1~3]	동형이의어의 의미 확정	비연계	-
사회·문화 (주제통합) [4~9]	법 모델과 임대차 분쟁	수능특강 131쪽 (이감 중요도 A)	2025 간쓸개 시즌2 3차 2025 간쓸개 시즌2 6차 2025 간쓸개 시즌3 1차
과학·기술 [10~13]	수소의 저장 및 운송 방법	수능특강 249쪽 (이감 중요도 A)	2025 이감 시즌2 1차 2025 이감 ON 2차 2025 간쓸개 시즌2 2차 2025 간쓸개 시즌3 4차
인문·예술 [14~17]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수능특강 73쪽 (이감 중요도 C)	-

문학			
세부 영역	작품	EBS 연계	이감 연계
현대소설 [18~21]	이범선, 「표구된 휴지」	비연계	-
고전시가 + 수필 (갈래 복합) [22~26]	(가) 홍정유, 「동유가」 (나) 이태준, 「해촌 일지」	수능특강 64쪽 (이감 중요도 B) 비연계	-
고전산문 [27~30]	작자 미상, 「김진옥전」	수능특강 117쪽 (이감 중요도 A)	2025 이감 시즌2 1차 2025 이감 ON 2차
현대시 [31~34]	(가) 황동규, 「살구꽃과 한때」 (나) 신석정, 「역사」	비연계 수능특강 92쪽 (이감 중요도 C)	-

화법과 작문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화법 [35~37]	사이테스 등재 생물종과 관련 절차 (발표)	비연계	2025 이감 시즌2 2차 2025 이감 ON 3차 2025 화법과 작문 N제
작문 + 화법 통합 [38~42]	인증 솟 현상에 대한 비평문과 시사 비평 동아리 면접 (비평문 + 면접)	비연계	2025 이감 시즌3 2차 2025 이감 ON 5차
작문 [43~45]	미식 관광의 개념과 효과 (정보 전달 글)	수능특강 122쪽 수능특강 128쪽	2025 이감 시즌2 2차 2025 이감 시즌3 3차 2025 이감 ON 3차 2025 화법과 작문 N제

언어와 매체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음운론 [35~36]	용언 활용 시 음운 변동의 표기 반영	수능특강 90쪽	2025 이감 시즌3 2차 2025 이감 시즌3 3차 2025 이감 ON 5차 2025 언어와 매체 N제
형태론·통사론 [37]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피동사,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건문장, 본용언과 보조 용언	수능특강 75쪽 수능특강 226쪽	2025 이감 시즌3 4차 2025 언어와 매체 N제
통사론 [38]	관형사절의 성격	수능특강 72쪽	2025 이감 시즌3 4차 2025 언어와 매체 N제
국어사 [39]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	수능특강 102쪽	2025 이감 시즌2 1차 2025 이감 ON 2차 2025 언어와 매체 N제
언어 + 매체 통합 [40~43]	학급 자율 활동 계획서 (온라인 공동 문서 + 누리 소통망 대화)	비연계	2025 이감 시즌3 4차
매체 [44~45]	동아리 신입 부원 모집 포스터 (앱 + 온라인 카페)	수능특강 233쪽	2025 이감 시즌3 1차 2025 이감 ON 4차



주제통합 | 중심 소재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과 간쓸개 지문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보장되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음
- <보기> 문항에서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상황에 지문의 개념들을 적용하도록 요구했음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다라도 임차인에게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 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자신이 소유한 A 주택과 B 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갑이 위의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5 간쓸개 시준2 3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회 경제적 약자인 상가 건물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자 2001년 12월에 제정되었지만, 상당 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일이 빈번히 나타났다.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2015년에, 임차인에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약 만료 전 3개월간 ㉠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리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상가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긴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는 재건축 이후 임대인의 건물 가치로 편입된다. 게다가 임대인이 법에 규정된 조건이 아닌 건물 보수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도 법에 어두운 임차인이 이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구도심에 있는 낡은 건물의 건물주 갑은 2014년 3월에 카페를 운영하려는 을과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의 조건으로 2년 만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을을 비롯한 주변 상인들의 노력으로 점차 상황이 활성화되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였다. 2016년 3월에 갑은 을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의 조건으로 3년 만기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을은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라면 수용하겠다고 하여 양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갑이 제시한 조건으로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년 10월에 갑은 건물을 보수할 계획이므로 2019년 3월 만기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을에게 통보하였고



주제통합 | 중심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을 다뤘다면, 간쓸개 지문은 그 연장선에서 임차권과 관련된 법적 담론들을 다양하게 다루었음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다라도 임차인에게서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 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㉔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원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2025 간쓸개 시즌2 6차 2025 간쓸개 시즌3 1차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권리관계가 ㉚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주택을 빌리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되는데, 임차인이 ㉚ 주택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인 임차권과 분리하여 그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채권 양도'를 했다고 하자.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면 주택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㉚ 승계하면서 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인수하게 되어 '채무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채권 양도와 채무 이전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바뀌었음에도 임차인은 그대로인 상황이 빚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갖게 된 주택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그런데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만으로 충분한 구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시 방법을 갖춘 채권에 한해 목적물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가 인정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차권에 근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㉚ 들 수 있는데,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한정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전입 신고도 하여 주민 등록을 ㉚ 마친 경우 그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이때에도 방해 배제 및 방해 예방에 한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과학·기술 | 중심 소재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과 이감 모의고사 지문 모두 재생 에너지를 통해 탄소 배출 없이 생산 가능하다는 수소의 특징에 초점을 두어 설명했음
- 또한 이감 모의고사 지문과 간쓸개 지문 모두 평가원 지문에서 다른 수소 연료 전지의 구조 및 원리와 관련한 개념들을 다루었음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된 수소 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부피를 크게 @ 줄일 수 있는 액화 수소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액상 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분자당 세 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 쓰이는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 수의 비는 2:1:3이다. ㉢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 0.9 이상의 전환율이 ㉣ 얻어지는데, 부반응은 거의 없다. 여기서 전환율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 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 수로 나눈 값이며, 부반응이란 암모니아 분해 반응의 의도된 생성물 외의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뜻한다.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인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로, 산화 극, 환원 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된다. 산화 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환원 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을 생성한다. 이 외의 반응은 거의 ㉤ 일어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이다.

* 몰: 원자 또는 분자 6.02×10^{23} 개.

2025 이감 모의고사 시즌2 1차 2025 이감 ON 모의고사 2차 2025 간쓸개 시즌3 4차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와 달리, 수소 연료는 산소와 결합하는 연소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그 생산 과정에서조차 이산화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 연료를 그린 수소라 한다. ㉠ 알칼리 수전해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에 활용되는 주요 기술 중의 하나이다.

알칼리 수전해 장치는 수산화 음이온들이 포함되어 있는 물인 전해액이 음이온 교환막에 의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띤다. 그 한쪽에는 전선을 통해 배터리의 양극과 연결된 전극인 산화 극이, 다른 쪽에는 음극과 연결된 전극인 환원 극이 담겨 있다. 물 분자의 일부를 이루는 두 개의 수소 원자 중 하나가 전극 표면에 흡착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전극으로는 표면에 물 분자가 잘 흡착되는 금속이 사용된다.

수 나노미터 크기에 불과한 반도체 나노 입자는 그 직경에 비례하는 파장의 색을 발광할 수 있어서 디스플레이에서 특정 색을 구현하는 데 사용된다. 반도체 나노 입자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열분해법이 많이 사용된다. 이는 용액 상태로 만든 반도체 구성 원소들을 나노미터 수준의 고체인 결정으로 석출시키는 결정화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반응 온도와 반응 시간 조절을 통해 원하는 크기의 나노 입자를 얻을 수 있다.



고전산문 | 작품 적중

- 평가원 지문과 이감 모의고사 지문에서 「김진옥전」을 공통으로 다루었고, 지문의 상당 부분이 일치함
- 평가원 문항에서 정답으로 삼은 판단 지점이 이감 모의고사 문항에서 정답으로 삼은 판단 지점과 일치함
- 서로 다른 공간에서 두 개의 서사가 진행된다는 작품의 특성을, 평가원 문항과 이감 모의고사 문항에서 공통으로 다루었음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각설, 이때 중국 대병이 회환하다가 일야 대풍에 원수 탄 배 표풍하여 간 곳이 없는지라. 군중이 황황하여 두루 찾았으나 종적을 모르는지라. 삼 삭 만에 본국에 돌아와 황제께 아뢰길 ‘대원수 김진옥을 중도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대경차탄하시고 다른 제장 군졸들은 무사 귀국함을 기꺼하시나 원수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이때 유 승상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책하여 부인과 소저와 주야 근심하여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 손 모아 기도 하더라. 이에 앞서 우양 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하매 형성군의 머느리 되었으니, 김진옥이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옥이 틈을 엿보더니, 원수 표풍하여 사생 모험을 듣고 대회하여 병부상서 정동한 등으로 통하여 황제께 여쭙오되

“갑자년 난중에 김진옥의 아버지 시광도 오랑캐와 내용하다가 성사치 못함으로 월국으로 들어가더니 지금 진옥이 월국을 치는 체하다가 월국으로 도망하여 제 아버지와 동심협력하여 중국을 해코자 하오니 그 처자를 어찌 살려 두리까? 황제는 앞날을 생각하소서.”

황제 그 말을 듣고 그러할 듯한지라 즉시 유 승상을 삭탈관직 하고 진옥의 처 유 씨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더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2025 이감 모의고사 시즌2 1차 2025 이감 ON 모의고사 2차

각설, 원수가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던 장졸이 보매, 일야대풍 (一夜大風)에 원수의 탄 배 표풍하여 간곳없는지라. 군중이 황황하여 제장 군졸이 두루 찾되 종적을 모르더라. 하릴없이 장졸 등이 주야로 행하여 황성에 득달하여 천자에게 이 사연을 주달하오니, 상이 들으시고 대경 한탄하시고 제장 군졸의 무사 귀국함을 기꺼하시나 ㉠원수의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괴히 여기시더라.

㉠차시 유 승상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책하여 부인과 딸과 주야 근심하며 원수가 천행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축수하더라.

㉠선시(先時)에 우양 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하매 형성군의 머느리 되었으니, 김진옥이 부마 되기를 지극히 피한 것을 미워하여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옥이 틈을 엿보더니, 원수가 표풍하여 사생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대회하여, 이에 전 승상과 부마 전여선과 좌승상 이선영과 병부 상서 정동한 등과 더불어 밀밀히 계교를 베풀어 천자에게 주하되,

“갑자년 난중에 김시광이 남 선우와 내용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도망하여 남국에 들어가 대국을 도모코자 했으니 이는 반역지신이요, 또 그 아들 김진옥이 남국에게 항복 받고 돌아오는 체하다가 이제 도망하였사오니 이 또한 역신(逆臣)이라. 그의 처자를 어찌 그쳐 두리잇가. 앞드려 바라옵건대 성상은 이를 자세히 살피소서.”

상이 들으시고 그렇다 여기서 유 승상을 삭탈관직하시고 진옥의 처 유 씨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더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29. 다음은 학생이 읽기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진옥전』에서는 진옥의 표류를 계기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가족의 상봉과 위기의 서사가 전개되었다. 진옥이 표류해 도착한 공간에서는 진옥이 부친과 상봉했는데, ㉠ 진옥과 부친이 이별하였을 때의 상황이 언급되었고, ㉡ 진옥이 부친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한편, 진옥이 부재한 공간에서는 진옥의 가족을 해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이 그러할 듯하다고 이해했지만, ㉣ 공주는 진옥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계락을 꾸몄다. 그 후 ㉤ 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에 의해 진옥의 가족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듯 표류는 진옥과 가족의 만남을 돕거나 방해하면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원수의 표풍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옥이 적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한 실수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② 진옥이 꿈에 나타난 스승의 당부를 따르지 않아 겪게 된 일이다.
 ③ 진옥의 부하들이 사전에 알고 막으려 했으나 실패하여 발생한 일이다.
 ④ 진옥의 가족은 물론 황궁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진옥에 대해 근심하도록 한 일이다.
 ⑤ 천자가 그에 대해 슬피하다가 나중에는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게 된 일이다.

21.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김진옥전』에서는 출전한 주인공이 겪는 사건 못지않게 그가 부재한 황성에서 가족이 겪는 위기 역시 비중 있는 서사로 다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환의 표지들이 활용되어 상황이 풍부하고 다각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 표지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 ① ㉠을 통해 명군의 입장에서 남 선우군의 입장으로 초점을 이동함으로써, 양군을 아우르며 전투 상황을 그리고 있군요.
 ② ㉡과 ㉢을 기점으로, 출전한 주인공의 서사와 주인공이 부재한 황성에서의 서사가 교차되고 있군요.
 ③ ㉣과 ㉤을 통해 유 승상 집안의 반응을 덧붙임으로써, 주인공과 결부된 황성의 상황을 풍부하게 그리고 있군요.
 ④ ㉤을 통해 진옥과 관련된 우양 공주의 과거 사연을 언급함으로써, 주인공의 부재 상황을 초래한 음모의 내막이 밝혀지고 있군요.
 ⑤ ㉤을 통해 진옥이 출전한 사이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을 삽입함으로써, 주인공의 부재 상황에서 그 가족이 겪게 된 일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군요.

